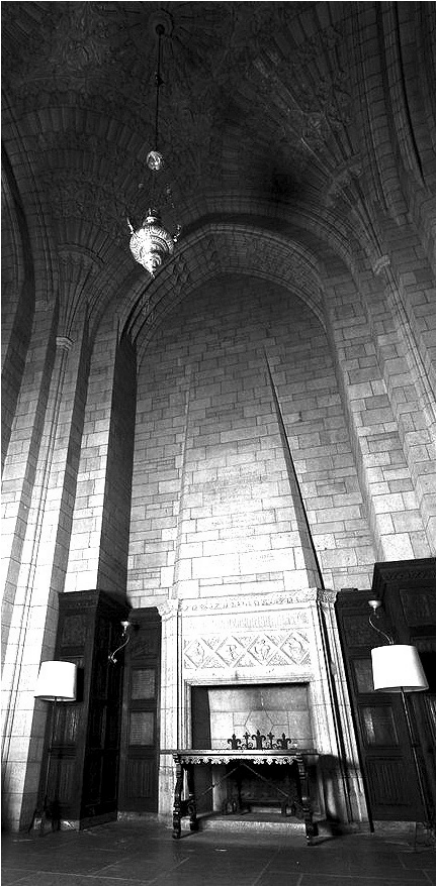


예일대, 불교동호회 실행공간 폐쇄...빈축

예일대측 폐쇄이유 밝히지 않아, 재학생들 정보 요청



예일대학교 베텔(Battell) 예배당 내부. 예일대 불자 재학생들은 베텔 예배당에 마련했던 불교 실행공간이 갑자기 폐쇄된 것을 놓고 "대학 당국이 인디고 블루에 대한 호스팅 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美 명문사립 예일대학 당국이 불교 동호회 '인디고 블루(Indigo Blue· 지도법사 브루스 블레이어)'의 실행공간을 갑작스럽게 폐쇄한 가운데 이곳의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재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일대일리(yaledaily.com) 지는 지난달 29일 "대학에서 불교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수 불자 재학생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던 인디고 블루가 실행 터전을 잃게 됐다"고 보도하고 "자신들의 실행 공간이 대학 당국의 일방적인 폐쇄 조치에 불자 재학생들이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고 블루는 지도법사 브루스 블레이어(Bruce Blair)의 노력으로 예일대 호스팅 프로그램의 지원받아 학내 베텔(Battell) 예배당에 실행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고, 9년 넘게 예일대 전체 재학생의 1.4%로 추산되는 불자 재학생의 신심을 다잡아 왔다.

인디고 블루의 실행 프로그램 가운데 매 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는 불교명상 프로그램이 가장 큰 호응을 얻어 왔는데, 명상 공간에 '정적과 빛(Stillness & Light)의 공간'이란 이름이 붙여지는 가하면, 이곳에서 명상을 배운 일군의 학생들이 매일 새벽마다 모여 촛불을 켜 채 새벽명상을 하

는 진풍경을 연출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불자 학생들의 탄식과 반발도 크다.

예일대일리 지는 "정적과 빛은 예일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 중 하나", "인디고 블루의 끝은 학대 불교공동체의 가장 큰 손실" 등의 불자 재학생들의 반응을 전하는 한편, "관련 재학생들이 인디고 블루 친구들(The Friend of Indigo Blue)를 결성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학교 당국의 어떠한 경고도 없었는 점"이라고 지적한 제프리 리우는 "인디고 블루에서 함께 명상을 했던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곧게 잡힌 문'과 '베텔 예배당 입구에 붙여진 공고문'이 전부였다"며 "우리 믿음을 실천하는 유일한 장소를 폐쇄하는 결정이었는데, 그 과정은 너무도 간략했다"고 토로하며 불자 재학생들의 우려와 의혹의 반응을 전했다.

한편 인디고 블루 실행 공간의 갑작스런 폐쇄 후, 예일대 측은 "대학 당국은 불자 재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정신문화의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자 재학생의 활동을 돕는 새로운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불자 재학생을 주축으로 '불교운영위원회'를 11월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내 하크니스(Harkness) 타워 내

브랜드포드(Branford) 기념실에 불자 재학생을 위한 실행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예일 스트레스 센터(Yale Stress Center)와 협조해 불교명상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내 불자 재학생의 반응을 녹록하지 않다.

"대학 당국은 아직까지도 인디고 블루 실행 공간을 폐쇄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불자 학생들은 "인디고 블루가 예일대 호스팅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고 있었지만, 베텔 예배당을 실행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간 8천 달러를 예일대에 기부해야 했다"고 전하고 "대학 당국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브루스 블레이어 지도법사를 비롯한 인디고 블루 운영위원회의 고충과 대학 당국의 갑작스런 처분을 심문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디고 블루는 예일대 모든 학생들에게 불교 철학의 올바른 길을 알려줘 왔을 뿐 그것을 홍보하지도 않았다"고 전제하 브랜든 로스는 "경쟁적이고 위압적인 예일대 풍토에서 등몰이 되었던 인디고 블루의 실행 공간을 폐쇄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150여 명의 재학생들이 '인디고 블루 친구들(The Friend of Indigo Blue)' 결성, 대학 당국에게 자세한 정보 요청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교단사 문제 재검토·연구 중점

세계의 불교학자(39)

사사키 시즈카 일본 하나노조 대학교수



사사키 시즈카(佐佐木 57) 일본 하나노조 대학 교수는 인도 불교 교단사(敎團史)의 제도 문제를 재검토 하고 연구하는 학자다. 그는 여러 문헌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교단사 관련 전승들 및 이 전승들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해석과 가설을 제시한다. 방대한 교단사 자료 및 기존 연구 속에 답답함을 느끼는 후배 연구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적 존재이다.

과거의 일반적인 교단사 연구 방법론은 여러 문헌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결집이나 부파 분열에 관한 자료들을 주제 별로 모아 서로 비교하고 그로부터 이끌어낸 공통요소를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분류해 역사적 사실로 간주했다.

그러나 사사키 교수는 "이런 방법이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얻어진 요소를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에 관련된 전승일수록 오히려 후대에 각 부파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점차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키 교수는 결집이나 부파 분열과 같은 작자의 자의적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들은 일단 배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에 직접 언급하지 않는 자료들의 철저한 조사에 근거해 먼저 가설을 세우는 방법을 택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해 사사키 교수는 인도 불교 교단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 나가고 있다. 그 성과는 2000년에 출판한 <인도 불교 변이론-왜 불교는 다양화했는가?>(인도佛敎變移論 - なぜ佛敎は多様化したのか)에 잘 나타나있다. 이 책은 사사키 교수가 1989년 아쇼카왕의 파승(破僧) 비문에 관한 연구를 10여 년에 걸쳐 진행한 일련의 파승 관련 논문들을 모아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엮은 것이다.

책에서 사사키 교수는 아쇼카왕의 파승 비문과 대중부의 (마하승기율)에 보이는 파승 방지에 관한 기술이 대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 율을 세밀하게 검토해 파승의 정의를 고찰했다. 그 결과 제 율에 따라 파법륜승(cakrabhedha)과 파갈마승(karmabhedha)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파승 정의가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다.

사사키 교수에 따르면 파법륜승은 '불실에 위반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독자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며, 파갈마승은 '승단 내에서 따로 따로 포살 등의 승단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는 제 율에 근거해 "원래 파법륜승이었던 파승의

정의를 파갈마승으로 전환해 갔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논증했다.

사사키 교수는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학자로서 다양한 불교서적도 출간했다.

올해 한국어로 펴낸 <일일시수행>에서 그는 불교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알 수 있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불교를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닌 운영 이념을 소개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하고 있다.

책을 통해 그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상으로 집약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 가르침 중 눈에 띄는 것을 추려 '이것이 불교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이밖에 사사키교수는 <불교와 과학, 진리를 논하다>라는 책에서 유전학자인 사

울장연구 통해 과거 승단 재현

기존의 교단사 연구방법 탈피

현대불교 율 수용문제도 관심

이토 나루야와 심도있는 토의를 나눈다.

유전학자인 사사키 교수는 종교의 미래에 대해 "절대자에게 귀의하는 스타일의 종교(불교 제외)는 과학과 거리가 멀고 비논리적인 수밖에 없으며 결국 율리와 도덕에 의존해 그 미래가 불안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면 사사키 교수는 "종교가 과학과의 공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종교는 개개인이 자기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고자 선택한 것이 막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것을 엮은 것이다.

책에서 사사키 교수는 아쇼카왕의 파승 비문과 대중부의 (마하승기율)에 보이는 파승 방지에 관한 기술이 대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 율을 세밀하게 검토해 파승의 정의를 고찰했다. 그 결과 제 율에 따라 파법륜승(cakrabhedha)과 파갈마승(karmabhedha)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파승 정의가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다.

사사키 교수에 따르면 파법륜승은 '불실에 위반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자가 독자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며, 파갈마승은 '승단 내에서 따로 따로 포살 등의 승단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는 제 율에 근거해 "원래 파법륜승이었던 파승의

이어나 기자

달라이라마, "시진핑 아버지와 친분 있다"

1954년 베이징서 만나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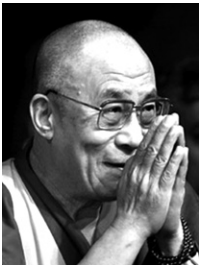
"시중순은 우호적이고 사상이 자유로우며 인품이 좋았던 사람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새 권력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의 부친 시중순 전 부총리와 인연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1월 1일 "달라이 라마가 8월 인터뷰에서 시중순을 '우호적이고 사상이 자유로우며 인품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이 1954년 베이징에서 중국어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울 당시 시중순을 알게 됐고, 시중순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했다고 소개했다. 시중순은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달라이의 선물'이라고 자랑하곤 했으며, 사망하기 전에 자신을 만나고 싶은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중국의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11월 8일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인연을 내세운 것은 시진핑 부주석이 최고 지도자직에 오를 후 티베트



달라이라마



시중순

정책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순은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티베트에 강경 정책을 펼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달리 티베트에 대해 비교적 덜 강경한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이 라마의 조카로 시중순을 만난 적이 있는 카이두 툴주는 지난 8월 로이 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시 부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는 않아요"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얀마, 불교도-무슬림 유혈사태

난민 3만 명 이상 추정

미얀마의 불교도와 무슬림간 유혈사태로 미얀마 민주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6월 이후 종교분쟁이 재발함에 따라 군부의 입김이 다시 작용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의 10월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10월 21일 이후 열흘 동안 80명 이상이 사망하고 3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나타났다.

유엔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이번 분쟁으로 최소 84명이 숨지고 12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피난민도 3만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피난민 가운데 약 2만 2000명은 로힝야족이다. 이 지역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이 이슬람 로힝야족 거주지역에 불을 질러 가족 4600여 명이 소실됐다.

지난 6월 유혈사태 발생 당시 발생한 사망자와 피난민 수를 합하면 1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의 수린 핏수완 사무총장은 미국의소리(VOA)를 통



미얀마 시트웨에서 한 주민이 물을 뿌리며 불타는 가옥에 대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 "버마(미얀마) 서부의 종파 간 폭력사태가 소수 이슬람부족인 로힝야 족을 과격하게 만들어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150만 명이 달하는 로힝야 족이 과격해질 수 있다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유엔도 미얀마 정부에 종교분쟁을 진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얀마 당국은 10월 27일부터 안정을 위해 경찰 및 군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나 기자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범음범패 학인 모집

- ◆ 실용의식 : ① 천수경 ② 상단, 각단예불 ③ 천도, 49재 모든의식
- ◆ 작 범 무 : ① 천수바라 ② 화의재바라 ③ 오공양자범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3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 문의처 : 010-5065-5690, 010-4746-6581,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극락사

템플스테이 안내

1. 초급 중급 고급 기도 법 배우기
2. 자비명상, 마음치유명상, 행복명상, 성격개조 명상, 임종명상, 견기명상
3. 위파사나 : 사념처 관법, 오정심 관법
4. 간화선 = 선정삼매와 간화선 수행
5. 단전호흡, 도인체조, 향공, 오금회, 육단금 ..대안기공, 태극권 등...
6. 단기 출가 (2박 3일 ~ 6박 7일까지)

수월스님의 BTN 불교 TV 강좌 안내
1. 월요일 17:00 2. 금요일 08:00 3. 일요일 23:00

02)434-1717
서울 중랑구 망우 본동 73-10번지 극락사